“훈련 즐거워야 덜 힘들다” … 웃음 넘치는 운동장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이 14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여울 기자

TIGERS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투수조·야수조 함께 수비·타격 훈련…해진 뒤엔 숙소서 야간 훈련

박경태·김유신·하준영 등 젊은피 주축 서로 격려하며 팀웍 ‘UP’

‘호랑이 군단’의 미래가 함성과 웃음 속에 커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달 29일 오키나와 킨 구장에 캠프를 차리고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밥 먹는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 선수들이 머무는 동안 경기장은 시끌시끌하다. 수비 훈련을 하면서도, 방망이를 치면서도, 훈련을 하러 이동을 하면서도 선수들의 입은 쉬지 않는다.

선수들은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동료에 대한 칭찬의 함성도 지르고, 실수를 하면 짓궂은 농담도 하면서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을 치는 동안에도 경기장 밖으로 기합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14일에는 선수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컸다.

KIA 선수들은 지난 13일 비가 내리면서 특별 휴가를 받았다. 체력이 떨어질 때쯤 ‘꿀맛 같은 휴식’을 얻은 만큼 선수들은 14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다. 또 이날 투수조와 야수조가 함께 어울려 수비 훈련에 나서면서 경기장은 선수들의 함성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평소 ‘즐거운 훈련’을 강조하는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는 “악을 질러야 힘을 내는 것이다”며 KIA 훈련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캠프가 진행되고 있지만 훈련 강도는 만만치 않다.

특히 야수조들은 오전 엑스트라조의 훈련을 시작으로 쉴 틈 없이 본구장과 보조구장을 돌면서 수비, 타격 훈련 등을 소화한다. 해가 진 뒤에는 숙소에서 야간 훈련까지 치러야 하루가 끝난다.

오키나와의 날씨도 선수들을 지치게 한다. 이날 한낮 기온이 27도에 이르는 등 뜨거운 햇살 아래 선수들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은 “훈련은 힘들다”면서도 “캠프는 즐겁다”고 말한다.

군 복무를 마치고 3년 만에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투수 박준표는 “처음 두 번째 턴까지는 훈련이 힘들었다. 하지만 예전보다 분위기 더 좋아진 것 같다. 훈련만 신경쓰면 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캠프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친구, 동기들이 어울리는 캠프라서 캠프 분위기는 더 밝다.

1987년생 박경태가 최고참인 이번 캠프는 ‘미래 꿈나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김유신, 하준영, 백미카엘, 오정환, 한준수가 1999년생 막내로 마무리 캠프에 처음 참가한 2018 입단 동기들이다.

새 출발선에 선 예비역들의 미래가 익어가고 있는 캠프이기도 하다. 상무에서 한솥밥을 먹은 황대인, 이창진, 이준영과 경찰청에서 돌아온 박준표, ‘귀신 잡는’ 박정우와 ‘KBO리그 1호 독도 경비대원’ 윤완주 그리고 지난 3월 소집해제된 이은총이 예비역이 되어 참가하는 첫 캠프다.

‘동기부여’라는 좋은 에너지원도 있다.

올 시즌 처음 1군 무대에서 활약한 황인준, 이적 후 이름을 알린 유민상, 황윤호와 가능성을 엿본 문경찬, 이민우 등에게 이번 캠프는 내년 시즌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시간이다.

힘들지만 즐겁게 또 알아서 움직이는 캠프다.

이번 캠프의 주장을 맡은 이인행은 “주장이라고 하지만 딱히 할 일이 없다.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고, 김민호 총괄 코치님을 비롯한 코치님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운동은 힘들어도 즐겁게 캠프 잘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wool@kwangju.co.kr

전역 일주일 된 윤완주 “총알보다 야구공이 빨라요”

캠프 T 톡톡

▲총알보다 야구공이 빨라요 = 이제 막 전역한 ‘예비역’ 윤완주에게는 총알보다 빠른 야구공이다. ‘KBO리그 1호 독도 경비 대원’인 내야수 윤완주는 지난 5일 전역을 한 뒤 7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와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병장 휴가를 넉넉하게 와 함평에서 미리 훈련도 하며 감잡기에 나섰지만 아직은 군 공백이 느껴지는 윤완주다. 그는 “티를 칠 때를 모르겠는데 라이브를 할 때 공이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 스윙하고 나면 공이 들어간다. 총알보다 야구공이 빠른 것 같다”며 머쓱하게 웃었다.

▲핑클? 잘 몰라요 = 오키나와 킨 구장에 마무리 캠프를 꾸린 KIA는 타격 훈련 시간에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서 고된 훈련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 중 하나다. 선수나 코치들의 핸드폰에 담긴 음악을 돌아가면서 트는 방식. 14일 오후에는 90년대 음악이 흘러나왔다. 원조 아이돌로 대표되는 핑클의 음악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투수 차명진은 “핑클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차명진은 “핑클요? 잘 몰라요. 워낙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고”라고 답했다. 핑클은 1998년에 데뷔했고, 차명진은 1995년생이다.

▲안 끝난다는 거지 = 김민우 코치의 끝나지 않는 펑고시간이었다. 보조 구장에서 진행된 외야수 비 훈련. 김민우 코치가 “이번에 받으면 훈련 끝낸다”고 큰소리를 친 뒤 펑고 배트를 잡았다. 훈련을 끝내겠다는 굳은 각오로 순서를 기다리던 외야수조의 입에서는 이내 한탄이 쏟아졌다. 잡기 어려운 코스로 멀리 공이 날아오면서 번번이 공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종국 코치가 “훈련 안 끝난다는 거지”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수비 달인’에게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 펑고. 외야수들은 이후 몇 차례 시도를 한 끝에 겨우 훈련을 끝낼 수 있었다 .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 내려놓겠다”

16개월만에 사퇴…AG 선수 선발 과정 병역 특례 논란 곤욕

한국 첫 야구 국가대표팀 전임감독 선동열(55·사진) 감독이 16개월의 짧은 임기를 뒤로하고 사령탑에서 내려온다.

선 감독은 14일 서울 KBO 7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이 자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선 감독의 임기는 2020 도쿄올림픽까지였지만, 임기를 절반만 채우고 불명예 중도 사퇴의 길을 걸었다.

‘국보 투수’ 선 감독이 각종 국제대회 일정을 장기적으로 총괄할 초대 전임감독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야구 대표팀 미래는 장밋빛이었다.

2017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프리미어12, 2020 도쿄올림픽에서 야구 대표팀을 이끄는 게 선 감독의 역할이었다. 이 기간 다른 프로야구 구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국제대회만 연속적으로 지휘할 ‘전임 감독’이 탄생한 것이다.

선 감독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감독으로 2005·2006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WBC에서 투수 코치로 국제대회 경험도 쌓았다.

선 감독이 지난해 11월 APBC에서 대표팀 감독 데뷔전을 치를 때도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

당시 선 감독은 이정후(넥센), 임기영(KIA), 박민우(NC) 등 프로야구 유망주 선수들을 데리고 일본에 이어 2위에 오르며 2020 도쿄 올림픽 희망을 키웠다. 그러나 올해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신뢰도가 추락했다. 대표팀을 구성할 때 병역 회피 논란을 일으킨 선수들을 발탁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대표팀은 우여곡절 끝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병역 특례 논란이 커진 상태여서 선 감독과 선수들은 웃지 못했다.

선 감독은 이 일로 지난달 10일 국정감사 자리에도 증인으로 불려갔다.

선 감독은 야구 대표팀 병역 논란에 홀로 맞서는 신세가 됐다. 이 자리에서 선 감독은 연봉은 많이 받으면서 TV 시청으로 근무하는 편한 자리를 꿰찬 적폐 세력으로 몰리기까지 했다.

정운찬 KBO 총재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 출석, 전임감독제에 대해 “국제대회가 잦지 않거나 대표 상비군이 없다면 필요치 않다”고 말하며 선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이후 정 총재는 선 감독을 만나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선 감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이후였다.

선 감독은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국정감사에서 들은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말이 사퇴 결심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해의 주인공’ 누구

19일 MVP·신인상 시상

올 시즌 KBO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선수와 최우수신인선수가 오는 19일 가려진다.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시상식이 오는 19일 오후 2시 르메르디앙 서울 다빈치볼룸에서 개최된다.

MVP 및 신인상 투표는 지난달 15일과 16일 이틀간 올 시즌 KBO 리그를 취재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의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1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MVP 후보는 규정이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이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했다.

신인상 후보는 KBO 표창규정 제7조 KBO 신인상 자격 요건에 따라 2018년에 입단했거나 처음 등록한 선수를 대상으로 했다. 또 올 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2013년 이후 입단 및 등록 기준)의 선수 가운데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가 후보에 포함됐다.

투표는 MVP의 경우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2위 2점, 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투표인단 자율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수 개인별로 득표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선수가 수상자로 선정된다.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일한 최고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1위 표를 더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수상자가 된다.

MVP에 오른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3300만원 상당의 K7 차량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2018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의 투수 및 타자 부문별 1위 선수와 우수 심판위원상 시상도 이뤄진다.

이번 시상식은 KBO 홈페이지(http://koreabaseball.com)와 KBO 공식 유튜브 채널(https://goo.gl/iQZSmX)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